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순래(원광대학교 · 교수)
박철현(동의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한영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야 한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정책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 발달 환경과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대해 수년간 추적조사한 종단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전국 초1, 초4, 중1 청소년 및 보호자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수년간 추적조사하여 종단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연구를 시작하였다.

3차년도인 올해 2012년에는 전년도인 2011년의 2차 조사결과를 통계데이터로 구축하였고, 리서치브리프, 사업보고서,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관련학계를 대상으로 콜로키움,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 최종표본으로 구축된 청소년 및 보호자들에 대해 3차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년간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에 참여를 허락해주신 청소년 및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1차년도 조사과정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전국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신 교수님들, 현장전문가분들, 대학원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이 연구가 무사히 수행, 완료되어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논문작성과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했던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밝혀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보고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비행예방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패널 중1패널 1~2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교차분석(χ^2 검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학교애착, 부모애착, 이웃통합 등 청소년들의 생활경험들이 부정적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상황적 조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상황적 조건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비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학생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며(.057**), 자아존중감이 약할수록(-.073**),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275***),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450***), 이웃통합의 정도가 약할수록(-.367***),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2***).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일반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둘째, 일반 청소년 대상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셋째,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 교육 실시, 넷째,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력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네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청소년비행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했던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밝혀 우리나라 비행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보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Simons와 Burt가 소개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지들(적대적 시각, 미래뻔하 시각, 냉소적 시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비행예방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 연구의 목적인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Schutz의 현상학, Schur의 인지들 논의, Kroneberg 등의 틀선택 모형, Wilkstrom의 상황적 행위이론, Simons와 Burt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론 등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아동청소년패널 중1패널 1~2차년도 자료의 분석 : 문헌연구를 통해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위해,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세 가지 패널 자료(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 중 중1 패널 1~2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χ^2 검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주요결과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되거나 보통인 사람들은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2.77%와 85.12%인데 비해, 이것이 강한 사람은 79.31%만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거나 보통인 사람은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각각 5.57%와 5.49%인데 비해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한 사람들은 8.96%로 훨씬 더 높았다.

2)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과의 관계

- 청소년들의 생활경험들이 부정적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 부모애착이 높았을 때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사람이 52.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부모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는 각각 18.82%와 21.61%로 낮았다.
- 학교애착이 높았을 때에 범죄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49.10%로 매우 높았으나, 학교애착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각각 19.24%와 28.89%로 낮았다.
- 이웃통합이 강한 지역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59.0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웃통합의 정도가 보통이거나 약한 지역에서는 각각 27.46%와 18.87%만이 약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갖고 있었다.

3) 상황적 조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 상황적 조건들은 직접효과보다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비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남학생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며(.057**), 자이존중감이 약할수록(-.073**),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275***),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450***), 이웃통합의 정도가 약할수록(-.367***),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2***).

4. 정책제언

- 첫째, 일반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성찰적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능력은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야 발달한다 (Mead, 1962; Blumer, 1969). 따라서 청소년 비행 예방하는 한 방편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둘째, 일반 청소년 대상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래를 폄하하고 운명주의적이며, 사회규범을 경시하는 문화를 배우면 자신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Simons & Burt, 2011).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 등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 등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이 포함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셋째,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 교육 실시 : 청소년들의 일상적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 넷째,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력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이 연구결과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지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력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현재의 자기모습과 다른 대치자아, 긍정적 자극, 미래지향적 관심유도, 친사회적 구성원들과의 접근통로 활성화 등 변화유인제를 포함한 내용이 프로그램에 담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10
2. 범죄유발적 사고	14
3. 연구문제의 설정	20
III. 연구방법	23
1. 자료 및 표본	25
2. 조작적 정의	27
3. 분석 방법	30
IV. 분석결과	3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2. 주요 독립변인들과 비행과의 관계 : 교차분석	34
3. 개인적 요인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 교차분석	40
4. 비행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델	42
V. 결과	49
1. 연구요약	52
2. 정책제언	54
참고문헌	59

표 목차

〈표 III-1〉 중1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원표본 성공률	26
〈표 III-2〉 중1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조사성공률	27
〈표 III-3〉 이론적 요인들의 측정	29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표 IV-2〉 성별과 비행과의 관계	35
〈표 IV-3〉 자아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	35
〈표 IV-4〉 부모애착과 비행과의 관계	36
〈표 IV-5〉 학교애착과 비행과의 관계	37
〈표 IV-6〉 이웃통합과 비행과의 관계	37
〈표 IV-7〉 적대적 시각과 비행과의 관계	38
〈표 IV-8〉 미래편하시각과 비행과의 관계	38
〈표 IV-9〉 냉소적시각과 비행과의 관계	39
〈표 IV-10〉 범죄유발적 시각과 비행과의 관계	39
〈표 IV-11〉 자아존중감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40
〈표 IV-12〉 부모애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41
〈표 IV-13〉 학교애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41
〈표 IV-14〉 이웃통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42
〈표 IV-15〉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43
〈표 IV-16〉 각 모델들의 적합도	48

그림 목차

【그림 IV-1】 이론적 모델	44
【그림 IV-2】 직접효과 모델	45
【그림 IV-3】 이론적 모델(매개효과 모델)	46
【그림 IV-4】 수정모델	47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¹⁾

1. 서론

청소년비행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2007년 13.3%에서 2011년 12.1%를 나타내고 있고,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2007년 27.8%에서 2011년 20.6%를 나타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수년간 약간의 감소세는 나타내고 있으나 흡연의 경우 청소년 100명당 12명, 음주의 경우 청소년 100명당 20명 정도로 여전히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학교폭력 가해율이 12.6%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가해율이 15.7%로 늘어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수년간 많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 100명당 약 16명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소년의 경우에도 2006년 69,211명에서 2010년에는 89,776명으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비행문제가 약간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법무연수원, 2012).

그동안 청소년 비행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국가적 노력이 있어 왔다. 청소년 비행의 주요 하위유형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1995년 선배들의 괴롭힘과 구타로 고등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12월에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문화체육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보처 등 각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대책²⁾을 강구했다(박세정, 1998; 이순래, 2002: 83에서 재인용). 이후 2004년에 학교폭력대

1)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순래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집필하였음.

2) 1995년의 정부대책에 포함된 사항은 교육부 차관을 본부장으로서 하는 학교폭력추방대책 본부의 구성, 시·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추방대책반의 운영, 폭력피해 신고함 설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학생선도 및 피해상담 강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학교담당 검사제 도입, 학교주변 취약지역 방범초소 증설, 유해환경업소 정화 및 단속, 우범학생 명

책법과 동시행령을 제정했고,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정부부처가 합동으로 1차 5개년 계획³⁾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매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줄이려는 계획을 시행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순래, 2005: 20에서 재인용). 또한 2007년에는 비행소년의 나이가 점차 저연령화되고 비행내용이 흉폭화됨에 따라 소년법(법률 제11005호)을 개정하여 법률의 적용연령을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상한시간을 각각 200시간과 100시간으로 연장하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처분을 도입하고,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년사법기관의 대처방식도 대폭 수정했다(법무부, 2007). 2008년부터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하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를 운영하였고(최상근, 2011: 28), 2010년부터 시작된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전국 학교의 90% 이상에 CCTV를 설치하고 70% 이상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10).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적 노력이 수년동안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청소년비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처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적 대처노력의 방편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성과 규범의식의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가해학생과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선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견해일 것이다. 올해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12)이 대표적 사례이다. 2012년의 종합대책은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단 통보,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 등이다(박세정, 1998; 이순래, 2002: 83에서 재인용).

3)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5)은 1) 학교폭력 추진조직의 운영 활성화,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체계의 강화, 3)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의 강화, 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설정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순래, 2005: 20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5개년 계획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첨단 정보통신의 이용교육, 학부모대상 교육을 포함했고 특히 전문인력풀의 구성과 활용, 외부 상담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알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청소년상담사의 양성, 학교별 상담실의 운영 내실화 등 상담지원활동을 강조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순래, 2005에서 재인용).

4) 구체적으로, 2012년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12)은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2) 학

미진했던 대처활동을 보완하고 이의 내실화된 구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비행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Vaughan & Roberts, 2007; Wikstrom & Treiber, 2007; Simons & Burt, 2011). 청소년비행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 시각은 실증주의이다. 외부적 상황조건과 내부적 심리특성에 의해 청소년비행이 유발된다는 시각으로, 이에 따라 기존대책들은 상황적 조건을 개선하고 심리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치중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피동적 객체가 아니다. 실증주의에서 가정하듯이 외부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다. 또한 태도와 인성과 같이 기왕에 조직된 내면적 요인들에⁵⁾ 의해 조정되는 존재도 아니다(Reynolds & Herman-Kinney, 2003: 42). 일상적인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하며 이에 기반해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주관적 사고과정을 하는 존재이다(Thomas, 1923: 41-49; 조지 리처, 2001: 281-295; 박철현, 2010: 44-48). 기존의 대책들에서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사고과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견해는 기존 대책들이 청소년비행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주관적 사고과정의 중요성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실증주의가 오늘날에 지배적이지만, 일찍이 Mead(1962)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제안하면서 인간행위는 주관적 사고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후 Schutz(1967)와 Schur(1984)는 문화에 존재하는 전형적 지식들(typifications)들과 인지틀(cognitive scheme) 등 주관적 사고과정의 핵심요소들을 규명했다. 최근에 Simons와 Burt(2011)는 초기 논의를 발전시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로

교폭력은 결코 은폐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3)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을 직접대책으로,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근본대책으로 설정했다(국무총리실, 2012).

5) 태도와 인성을 심리학적 연구에서 강조하지만 이를 통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사회적 태도와 공격적 인성이 비행의 유발원인이라면, 일상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표출될 것이므로 현재의 수준보다 월등히 많이 비행을 저질러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반사회적 태도와 공격적 인성을 가졌더라도 일부의 사람에 대해 일정한 상황에서만 문제행동을 저지르고 그 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한다(Taylor et al., 1973). Vaughan과 Roberts(2007)는 현재의 태도와 인성보다 미래기반의 자의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Vaughan과 Roberts는 미래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희망적 반응자(hopelul reactors), 열정적 연마자(passion honers), 확신적 탐색자(confident explorers), 불안한 추구자(anxious seekers)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방법으로 미래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확신적 탐색자(confident explorers)와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대안적 목표를 수립할 능력이 없는 불안한 추구자(anxious seekers)가 현재의 태도와 인성과 무관하게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Vaughen & Roberts, 2007).

인해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사회관계에 대한 적대적 시각, 미래를 폄하하는 시각, 행위규범에 대한 냉소적 시각 등의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s)로 구성되며 이런 인지틀의 청소년은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비행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했던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밝혀 우리나라 비행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Simons와 Burt가 소개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지틀(적대적 시각, 미래 폄하 시각, 냉소적 시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비행예방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의의, 목적과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범죄유발적 사고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들을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자료 및 표본, 조작적 정의, 분석방법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제 4장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앞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청소년 비행의 예방대책들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2. 범죄유발적 사고
3. 연구문제의 설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⁶⁾

동일한 대상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라도 청소년의 주관적 해석은 같지 않다. 선생님의 훈계를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애정표현으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 학생은 상투적 잔소리 혹은 자기를 미워하는 징표로 생각한다. 친구와 눈이 마주 쳤을 때에 대다수는 그냥 지나치지만 일부는 도발적 징후로 해석하고 '왜 짜려'하며 적대적 반응을 표출한다. 친구에 대한 심한 조롱이나 왕따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는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선배들의 구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기 학교만의 소중한 전통으로 해석하는 학생도 있다. 상점절도에 대해서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나쁜 짓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1~2번은 해야 하는 장난치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청소년의 행위가 외부대상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히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각자의 주관적 사고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비행연구⁷⁾에서 주관적 사고과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회학 연구의 토대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일찍이 주관적 사고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사람들을 인간행위자(human agency, Bandura, 2006)로 즉 독자적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정하며, 언어와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주관적 해석결과에 따라 행위를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1960년대에 Lemert(1967), Becker(1963) 등의 낙인이론가들이 범죄학 연구분야에 소개했으며, 최근에 다시 부흥하여⁸⁾ 여러 학자들이 주관적 사고를 중심으로 비행과 범죄현상을 연구하고 있다(Giordano

6) 이 장의 1, 2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순래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집필하였고, 3절은 이순래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집필하였음.

7) 기존 이론들은 대부분 외부적·내부적 영향요인에 의해 비행유발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예컨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은 사회유대를 외부적 영향요인으로, 자아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은 자아통제력을 내부적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이들 영향요인들이 비행발생을 결정한다는 실증주의 시각이다.

8)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실증주의가 범죄의 원인

et al., 2002; Vaughan & Roberts, 2007; Wikstrom & Svensson, 2010; Simons & Burt, 2011). 다음에서는 본 연구가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범죄유발적 사고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한다.

1.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

1)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구조기능이론, 갈등이론, 교환이론과 함께 사회학 연구에서 대표적 토대이론의 하나이다. Mead(1962)가 이론개발을 주도했으며, 그는 주관적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행위의 유발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Blumer, 1969; Johnson, 1981). 첫째, 행위자들이 주위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반해 사람들은 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⁹⁾(Blumer, 1969; Johnson, 1981). 의미의 근원에 대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그것이 주위대상에 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체벌을 예로 들어보자. 얼마 전까지 체벌은 교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훈육행위였다. 당시 체벌에는 학생지도라는 목적(purpose)에 유효한(significance) 행위라는 의미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달성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체벌의 새로운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의미란 주위대상(체벌) 자체에 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위대상의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다는 것이다(Mead, 1962; Blumer, 1969; Johnson, 1981). 태어날 때부터 주위대상들의 의미를 알고 출생하는 사람은 없다. 의미획득과 관련해 Mead는 자신의 직접경험만으로 주위대상들의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Mead, 1962:

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초기단계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대량생산, 성장과 발전, 근면과 감정생활의 억제 등의 가치를 공유했으며 따라서 동질적 사고과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주관적 사고과정이 사회구성원간에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차이를 통해 범죄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대다수가 합의하는 공유가치를 찾기 힘들고 다양한 가치지향과 이질적 취향들이 공존하고 있다(이순래, 2008: 5-10).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시대처럼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사고과정이 동일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주위자극들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9) 상징(symbol)은 의미가 부여된 주위대상 즉 의미있는 몸짓, 언어, 물체, 사건,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이다. 이런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이란 사람들이 의미를 중심으로 상대방에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Mead, 1962; Blumer, 1969; Johnson, 1981).

135).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위대상 혹은 주위대상을 지칭하는 상징들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의미는 실제 생활과정에서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Mead, 1962; Blumer, 1969; Johnson, 1981). 상호작용에 의해 획득한 의미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주위대상과 상황을 정의하고, 가능한 행동방식의 윤곽을 그리고, 대안적 행위가 낳을 결과를 상상하고,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택한다. 그렇더라도 기존에 획득한 의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고능력이 있으므로, 내부대화(inner conversation)를 통해 언제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riffin, 2006: 62).

Mead는 자아(self)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상술했다(Mead, 1962: 135-225). 자아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 주요개념이다. 이 용어와 관련해 Mead는 유아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익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보는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다(박철현, 2010: 45). 이런 점에서 자아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아상(self-image)과 다르며 개인의 정신능력 수준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지사지(易地思之)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경우에 자아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지 리처(2001: 292)는 자아를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 아니고, 성찰력(reflexiveness), 남에게 반응하듯 자신의 자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남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이 깨달음에 근거해서 다음 순간에 해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자아의 발달에 있어 Mead가 강조한 사항은 사회적 경험(social experience)이다(Mead, 1962: 144).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쌓임으로써 자아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자아발달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걸쳐 진행되는데(박철현, 2010: 45), 첫째는 준비단계(preparatory stage)로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단순히 흉내내고 모방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놀이단계(play stage)인데 소꿉놀이에서와 같이 엄마, 아빠, 의사, 경찰의 시늉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배양된다(박철현, 2010: 45). 하지만 이 단계의 자아능력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이다. 몇 가지 별개의 역할만을 취득하므로 주위대상에 대해 분절화된 의미를 가지며 자신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통합된 인식을 갖지 못한다. 세 번째는 게임단계(game stage)로 사회적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 주위대상이나 자신에 일반화된 견해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단계이다(박철현, 2010: 46). 이 단계에 이르면 주위대상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의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고 자아인식도 일관성이 있고 통합성을 갖게 된다.

Mead(1962:175)는 자아를 'I'와 'me'로 구분하고, 이들의 내부대화를 통해 주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¹⁰⁾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me'는 주위대상들에 대한 견해가 조직화된 부분으로서의 자아이며 'I'는 생물학적 개인(biological individual)으로서의 자아이다. 즉 'me'는 사회화된 부분으로 주위대상과 자신에 대한 일반화된 의미가 내면화되어 형성된 자아이다. 반면에 'I'는 사회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주위대상에 즉각적 반응을 하는 개인화된 존재로서의 자아이다. 주위대상을 접했을 때에 'I'는 'me'를 불러내고 이에 반응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거꾸로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지적하여(Mead, 1962: 196) 사회화된 자아와 그렇지 않은 자아와의 내부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주위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2) Schutz의 현상학

Mead가 인간행위에서 의미의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Schutz는 의미의 구성과 의미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론발전에 기여했다. 현상학자인 Schutz는 주위세계(Umwelt)와 공유세계(Midwelt)의 조화·갈등·조정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조지 리처, 2001: 350-351). Schutz(1967)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활세계(life world)라는 당연시되는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행위하며 이런 세계에는 주위세계와 공유세계가 있다. 주위세계는 실제로 겪는 직접적 경험의 영역이며, 공유된 세계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전형적(typical) 지식 혹은 간접적 경험의 영역이다¹¹⁾.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공유세계의 다양한 행동지침, 문제해결책, 사회세계의 해석 등을 제공받는다. 그렇지만 공유세계가 제공하는 문화적 틀(framework)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겪는 주변세계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공유세계에 의하면 공무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고 권위적일 수 있다. 공유세계와 주변세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Schutz는 사람들은 공유세계의 문화적 틀로 의미를 구성하지만 그것이 주변세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공유세계의 틀을 조화·갈등·조정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의미는 개체로서의 자아의 개인적 경험 위에서

10) Mead는 주위대상에 대한 의미가 집단으로부터 얻어지지만 개인은 그것을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주장한다(Mead, 1962: 198).

11) 주위세계란 Mead가 자아의 구성요소로 분류한 'I'와 'me' 중에서, 창의적이고 사회화가 되지 않은 'I'가 경험하는 영역이며, 'me'가 의식하는 영역은 공유세계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Mead, 1962).

구성된다는 것이다(Schutz, 1967: 13).

Schutz는 의미에 내포되는 주된 내용이 전형화(typifications), 전체로서의 문화에 존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방적 지식(knowledge of recipes)이라고 보았다(조지 리처, 2001: 348). 주위대상과 관련한 문화적 일반유형들이, 예컨대 즉 행동하도록 해주는 규칙, 처방, 적합한 행동의 관념 및 기타 정보 등이 의미에 포함되는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Schutz가 생각하는 주관적 사고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지 리처, 2001: 350-351).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주위대상들에 대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전형화를 배운다. 그리고 전형적 상황이라고 배운 상황에서 전형화를 적용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 사용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문화적 일반유형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기존의 문화유형을 포기하고 특수한 환경이나 사람에 적합한 새로운 전형화를 구성한다(조지 리처, 2001: 350-351).

3) Schur의 인지틀 논의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전형화에 주목했다(Sudnow, 1965; Scheff, 1966; Cicourel, 1968; Emerson, 1969; Schur, 1984). 그 중에서 Schur(1984: 33)는 전형화가 개인의 주관적 사고과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문화적 일반유형들이 어떻게 개인에 전달되어 사람들이 특정대상에 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Schur는 인지틀(cognitive scheme)이 연계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지틀을 ‘사전인지된 유형들의 틀(a scheme of preconceived types)’이라고(Schur, 1984: 32) 정의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운 문화적 일반유형들로 인지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대상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Schur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인지틀과 성차별적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우선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여자에 대한 일반유형들을 정리했다. Schur가 파악한 문화적 일반유형들은 1) 여자들은 모두 “여자”로서 취급받기를 원한다, 2) 여자들은 모두 같아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여자들은 스스로 수동적이길 원한다, 4) 여자한테는 차별, 희롱, 폭력을 쉽게 할 수 있다, 5)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6) 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행동방식은 남자에 부수되는 것이다 등이었다(Schur, 1984: 33). 이후의 분석에서 Schur는 개인의 인지틀은 문화적 일반유형들을 수용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고, 수용수준이 높은 인지틀의 경우에 그만큼 더 여자에 성차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¹²⁾을 판별할 수 있었다(Schur, 1984: 91).

지금까지 Mead, Blumer, Schutz, Schur를 중심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검토했다. 검토한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사고능력이 있고 주관적 사고과정을 통해 행위를 선택한다. 둘째, 사람들은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반해 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 셋째, 사람들의 사고능력과 주위대상에 대한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다. 넷째, 주위대상의 의미는 실제 생활과정에서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 Mead는 'I'와 'me'의 관계를 통해, Schutz는 당연시되는 공유세계와 주위세계의 불일치를 조화·갈등·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사고하고 성찰하는 자아의 능력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쌓임으로써 자아능력이 발달한다¹³⁾. 여섯째, 사람들이 주위대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는 인지들을 통해서이다. 인지들은 전체로서의 문화에 존재하는 일반적 유형들에¹⁴⁾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를 선택한다.

2. 범죄유발적 사고(criminogenic thinking)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주관적 사고과정과 인간행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토대이론이다.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바탕으로 비행이나 범죄현상을 분석했다. 다음에서는 범죄유발적 사고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들을 살펴본다.

12) 이러한 결과는 전형화(typification)가 결과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 측면의 전형화는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 유형들이다. Schur가 분류한 여자에 대한 6가지의 유형을 결과적 측면의 전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정적 측면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 유형들이 개인의 인지틀(cognitive scheme)에 반영되고 주위대상을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형태이다.

1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자아의 성찰적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능력은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 발달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주입식 도덕수업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남을 많이 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개인들이 특정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틀은 사회전체의 전형화(typific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낯선 사람(others)에 대한 사회전체의 전형화(typification)가 위험한 사람, 두려운 사람, 손해를 입히는 사람,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 아동납치를 하는 사람 등이면 개인의 인지틀도 이렇게 형성되고 따라서 '낯선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Kroneberg 등의 틀선택 모형

Kroneberg 등(2010)은 주관적 사고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심부족을 비판하면서(Kroneberg et al., 2010: 554) 틀선택 모형(model of frame selection)을 상점절도와 탈세범죄를 설명하는데 적용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주관적 사고과정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범죄는 행위자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이다. 특정상황에서 범죄로 인한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범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Kroneberg 등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문을 가졌다. 범죄이익이 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 차량절도를 저지르지 않으며, 외진 도로를 혼자 산책하는 사람을 만나도 대부분이 강도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할까?

Kroneberg 등은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Kroneberg et al., 2010). 사회규범을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미부여의 틀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범죄이익이나 손실이 의미부여의 틀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려되므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틀선택 모형을 제안했다. 독일에서 2,130명을 대상으로 상점절도와 탈세범죄에 대한 의향(willingness)을 조사했을 때에 연구결과는 이들의 연구모형과 일치했다(Kroneberg et al., 2010: 260). 규범수준이 높은 사람은 범죄를 행위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익과 비용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였다. 반면에 규범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기대하는 이익이 클수록 상점절도를 저지르겠다는 의향이 증가했고,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범죄의향이 감소했다.

2) Wilkstrom의 상황적 행위이론

Wilkstrom 등(2007; 2010)은 상황적 행위이론(situational action theory)을 제안하며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이 범행동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상황적 행위이론은 범죄에 이르는 주관적 사고과정을 범행동기의 형성, 행위대안의 지각, 행위선택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개인적 특성요인¹⁵⁾과 상황적 조건요인¹⁶⁾이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이론이다. 상황적

15) 상황적 행위이론에서 개인적 특성요인은 유전적(genetic), 획득적(acquired), 경험적(experienced) 측면을 반영하며 욕망/전념(desire/commitments),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ies), 수행능력(executive capabilities)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도덕적 범주는 개인의 도덕의식, 도덕습관으로 측정하며 수행능력은 선택적 주의, 예견, 목표형

행위이론에 의하면 범행동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유혹(temptation)이다(Wilkstrom et al., 2007; 2010). 이런 범행동기는 개인이 특정한 욕망/전념을 가지고 있고 상황적 조건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일 때에 생겨난다. 좋은 성적에 대한 욕망이 있는 학생이 시험감독관이 자리를 비울 때에 컨닝의 유혹을 느끼는 경우이다. 다른 유형은 도발(provocation)이다(Wilkstrom et al., 2007; 2010). 도발적 범행동기는 상황에서의 장애나 마찰(friction)이 개인의 사회적 인지들(social schema)과 결부될 때에 생겨난다. 실직과 같은 상황적 장애(friction)가 있을 때에 주위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회적 인지들이 결부되어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등의 동기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범행동기가 생겼더라도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상황적 행위이론은 개인의 도덕적 범주와 수행능력(executive capabilities), 상황의 도덕규칙과 친숙도에 따라 행위대안의 지각과 행위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실제 범죄행위로의 이행여부는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Wilkstrom 등(2010)은 영국에서 1,95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황적 행위이론을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상황적 행위이론을 지지했다. 자아통제력(Gottfredson & Hirschi, 1990)은 그간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자아통제력을 포함시킨 분석에서 도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는 매우 강했으며($\beta = .378$) 이는 자아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beta = .20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도덕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를 행위대안으로 지각하지 않았고 범죄를 실행하는 수준도 낮았다.

3) Simons와 Burt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Wilkstrom 등(2007; 2010)과 Kroneberg 등(2010)이 사회적 인지들(social schema)과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을 범죄학 연구에 소개했지만 그것의 유형이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범죄유발적 사고를 가장 상세히 논의한 학자들은 Simons와 Burt(2011)이다.

Simons와 Burt는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했다. 대다수가 나쁘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Simons & Burt, 2011: 554). 오히려 비행이 정당한 것이고, 어쩔 수 없었고, 필연적이었고, 허용될 수 있고,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정의실현을

성, 자아감시(self-monitoring), 추상적 사고능력 등을 포함한다(Wilkstrom et al., 2007; 2010)
16) 상황적 조건요인은 주위사물(objects), 다른 사람(persons), 사건(events) 등의 측면을 반영하며 기회, 장애나 마찰(friction), 도덕적 맥락(moral context), 친숙성(familiarity)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도덕적 맥락이란 상황에서 요구하는 도덕규칙, 위반에 대한 감시와 제재 등을 포함한다(Wilkstrom et al., 2007; 2010).

위한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그렇다면 왜 비행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까? 왜 비행을 옹호하고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할까? Simons와 Burt(2011)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행위에 그릇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든다고 주장했다.

Simons와 Burt(2011)에 의하면 세 가지의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s)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구성한다¹⁸⁾. 사회적 인지틀의 성격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었다(Simons & Burt, 2011: 555-556). 1) 사회적 인지틀은 행위자의 과거경험과 미래행위를 연계한다. 2) 과거에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내재했던 유형들이 내면화된 표상(internalized representations)이며 미래에 경험할 사회적 징후들을 처리하는데 지침이 된다. 3) 상황을 인지하고 행위의 방향을 선택할 때에 암묵적으로 참조되는 추상적 원칙이며 지향이다. 4) 주요 관심사(cues), 외부자극의 의미, 행위대안들의 예측결과를 지시하여 다양한 외부자극을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 반복된 상호작용에 내재된 유형이 내면화된 것으로 대체로 쉽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 6) 새로운 상황으로 이전을 할 수 있어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7) 유사한 생활환경에 속한 사람은 유사한 사회적 인지틀을 갖는 경향이다(Simons & Burt, 2011: 555-556).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이들은 사회적 인지틀의 공통된 개념적 성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서 검토한 Mead, Blumer, Schutz, Schur의 논의와 나열된 내용들을 참조하면, 사회적 인지틀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전형적 유형들을 개인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위대상과 상황에 전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행동방향을 모색하는데 지침이 되는 추상적 원칙이나 지향(abstract principles and dispositions, Bourdieu, 1990; Meisenhelder, 2006)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했던 세 가지의 사회적 인지틀은 사회관계에 대한 적대적 시각(hostile view of relationships), 미래를 폄하하는 시각(discounting view of future), 행위규범에 대한 냉소적 시각(cynical view of conventional norms) 등이다(Simons & Burt, 2011).

17) Skyes와 Matza도 비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다. 비행의 부정적 의미를 희석하는 기제를 Skyes와 Matza는 합리화 혹은 중화(neutralization)라고 지칭하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충성심에 대한 호소(appeal to higher authorities)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박상기 등, 2011; 180-181).

18)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Simons와 Burt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잠재변인(latent construct)으로 3가지의 사회적 인지틀을 관찰변인(observed variables)으로 설정했다.

(1) 적대적 시각(hostile view of relationships)

적대적 시각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들에 적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지틀이다(Simons & Burt, 2011). 이런 시각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따뜻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사고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Simons & Burt, 2011: 557): a) 주위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b) 주위사람들은 항상 기만하고 착취하려고 하므로 강압적 수단으로 자신을 이익을 지켜야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 무시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무시될 때는 공격적 반응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d) 묵인과 관용은 자신의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 주위사람들이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에 공감(emphathy)과 동정심(sympathy)이 생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공감능력이나 감정이입능력이 부족하다. f)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해석할 때에 공격성, 위협성, 착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황정의를 한다. g) 주위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Simons & Burt, 2011: 557).

적대적 시각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 Simons와 Burt는 부모훈육, 차별대우, 지역환경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했다(Simons & Burt, 2011). 부모훈육의 경우는 부모가 강압적이고 냉담하면 자녀의 사회적 인지틀이 적대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화 과정에서 편견이나 편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많으면 적대적 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지역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이런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비행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지역의 높은 범죄율에 수반되는 사기와 배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주위사람들이 친절과 이타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상호부조와 공동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 이런 점에서 Simons와 Burt는 열악한 지역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적대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 미래편하 시각(discounting view of future)

미래편하 시각은 주위대상을 미래기반적(future based)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혹은 현재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식틀이다(Simons & Burt, 2011). 이런 시각의 청소년은 즉각적 만족에 치중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장기적 보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다. 이런 시각의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Simons & Burt, 2011: 559): a) 자신의 행위가 장기적 보상을 얻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b) 사회질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 미래의 상태는 사람들의 노력보다는 우연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d) 위험한 행위(risky behavior)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Simons & Burt, 2011: 559).

미래편하 시각의 형성에 대해 Simons와 Burt는 환경적 맥락, 생활경험, 다른 사회적 인지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Simons & Burt, 2011). 사회환경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면 단기적으로는 희생이 있더라도 미래에는 꼭 보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환경적 맥락이 그렇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미래보다는 목전의 이익에 치중하는 미래편하 시각으로 주위대상을 바라보게 경향이라는 것이다. 생활경험의 경우는 예측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 역시 미래편하 시각을 갖는다고 보았다. 사회적 인지들의 경우는 적대적 시각이면 미래편하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적대적 시각의 청소년은 주위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익을 취하려는 인지들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은 공감능력이 부족하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채 기회가 닿은 대로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게 된다.

(3) 냉소적 시각(cynical view of conventional norms)

냉소적 시각은 일상적 행위의 사회규범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회적 인지들이다(Simons & Burt, 2011). 이런 시각의 청소년은 사회규범을 경시하고 규범준수를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 냉소적 시각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부모애착, 집합효율성, 다른 사회적 인지들 등이 거론되었다(Simons & Burt, 2011: 560). 부모훈육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과 사회학습이론(Akers, 1998)에서도 사회규범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한다. 기존이론들과 유사하게 Simons와 Burt(2011)도 부모훈육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면 사회규범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위주의 일방적 훈육(non-supportive parenting)이면 냉소적 시각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집합효율성의 경우는 지역사회가 사회규범의 정당성(legitimacy)과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냉소적 시각을 갖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도덕규범과 법률을 임기응변식으로 양산만 하고 실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이런 행위규범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냉소적 시각은 다른 사회적 인지들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청소년이 주위사람들을 신뢰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장기적 보상을 추구하면, 이런 청소년은 공동체의 안정된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규범들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반면에 주위사람들을 믿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당면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Simons와 Burt는 적대적 시각과 미래편하 시각을 갖는 청소년이 냉소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Simons & Burt, 2011).

이상과 같이 Simons와 Burt는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사고를 상세히 논의했다.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드는데 있어 이들이 핵심요인으로 고려한 것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이다. 일상생활의 경험들로 인해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 등의 사회적 인식들이 형성되고 이런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로 인해 해당 청소년은 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함으로써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들이 형성되는 배경과 각각의 사회적 인식들을 가졌을 경우의 구체적 양상까지 기술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전체적 사고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연구문제의 설정

청소년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다룬 문헌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 적대적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가?
- 미래편하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가?
- 냉소적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관련문헌들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드는 이유가 왜곡된 사고과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Simons와 Burt는 왜곡된 사고의 원인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제안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형성된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 등의 사회적 인식들로 인해 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잘못 정의함으로써 비행에 빠져든다고 주장했다. 연구문제 1은 청소년비행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2.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교사와의 관계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지역사회 환경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Mead, Schutz, Schur, Simons와 Burt 모두 개인이 주위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적 경험에 의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문제 2는 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잘못 정의하는 사회적 인식들의 형성과 상황적 조건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3. 상황적 조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 상황적 조건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황적 조건의 직접효과)
- 상황적 조건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경유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황적 조건의 간접효과)
-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도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직접효과)

연구문제 3은 상황적 조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상황적 조건의 직접효과, 상황적 조건의 간접효과, 범죄유발적 지식의 직접효과를 구분함으로써 상황적 조건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과정을 검증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2. 조작적 정의
3. 분석 방법

제 3 장 연구방법¹⁹⁾

1. 자료 및 표본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세 가지 패널 자료(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 중 중1 패널 1~2차년도 자료이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패널 조사는 2009년 4월 기준 2009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표집한 전국의 중1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1차 조사를 수행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그 결과 중1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원표본 성공률은 73.1%, 원표본 대체율은 26.9%이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조사와 청소년 조사가 모두 성공한 조사 성공률은 87.0%로 최종 2,351명이 1차년도 표본으로 확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패널 조사의 2차년도 추적조사는 2011년 9월 26일~11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그 결과 조사대상 패널수(2,351명)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비율은 97.0%로 나타났고,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조사성공한 비율은 93.5%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 연구에서 초1, 초4, 중1의 세 가지 패널중에서 중1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발달단계상 중학교 시기가 이 연구의 주제인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 이 장의 1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 3절은 박철현 교수(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집필하였음.

표 III-1 중1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원표본 성공률

총계	지역별 할당학교수	원표본 성공학교수	원표본 성공률	원표본 대체학교수	원표본 대체율
서울특별시	8	5	62.5%	3	37.5%
부산광역시	5	5	100.0%	-	0.0%
대구광역시	4	3	75.0%	1	25.0%
인천광역시	5	3	60.0%	2	40.0%
광주광역시	4	3	75.0%	1	25.0%
대전광역시	4	3	75.0%	1	25.0%
울산광역시	4	3	75.0%	1	25.0%
경기도	10	2	20.0%	8	80.0%
강원도	4	3	75.0%	1	25.0%
충청북도	4	4	100.0%	-	0.0%
충청남도	4	3	75.0%	1	25.0%
전라북도	4	4	100.0%	-	0.0%
전라남도	4	3	75.0%	1	25.0%
경상북도	5	4	80.0%	1	20.0%
경상남도	5	4	80.0%	1	20.0%
제주도	4	4	100.0%	-	0.0%
전체	78	57	73.1%	21	26.9%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pp. 46.

표 III-2 중1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조사성공률

총계	전체 학생 수	조사성공 학생수	조사성공 보호자수	패널참여 거절 보호자수	최종 패널 수
서울특별시	280	263	251	17	234
부산광역시	159	155	145	12	133
대구광역시	161	160	158	3	155
인천광역시	187	187	175	12	163
광주광역시	135	130	111	16	95
대전광역시	130	125	119	12	107
울산광역시	138	136	135	20	115
경기도	385	383	372	26	346
강원도	129	129	119	5	114
충청북도	147	146	142	16	126
충청남도	112	112	103	9	94
전라북도	125	124	121	6	115
전라남도	135	137	133	18	115
경상북도	172	174	169	10	159
경상남도	166	162	160	15	145
제주도	155	154	145	10	135
전체	2,716	2,677	2,558	207	2,351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pp. 47.

2.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비행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로 도입한 요인들은 3가지 비행유발적 인지틀(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과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이다. 이 중 성별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변수는 몇 가지 하위차원들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요인들의 구성과 신뢰도계수(크론바하 알파)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이 연구의 핵심개념인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구성하는 3가지 하위차원 중 적대적 시각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의 다섯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역코딩을 한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71$).

다음으로 미래꿈하 시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의 다섯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역코딩을 한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88$).

다음으로 냉소적 시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의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역코딩을 한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66$).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의 네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두 번째의 진술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한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84$).

다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의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79$).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의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65$).

표 III-3 이론적 요인들의 측정

변수	요인	신뢰도계수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적대적 시각 (역코딩)	.71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편하 시각 (역코딩)	.88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냉소적 시각 (역코딩)	.66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역코딩)	자아존중감	.8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역코딩)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역코딩)	부모애착	.7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학교애착	.65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이웃통합	.60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웃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의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어트식 4점 서열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다($\alpha = .60$).

그리고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우선 비행진수를 종속변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비행진수가 지나치게 흡연 등의 사소한 비행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는 관계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적절히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대안으로 개별 비행유무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행의 척도는 청소년들이 한 비행의 가짓수를 나타내게 되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독립변수들과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각 요인들을 상, 중, 하의 3가지 차원으로 다시 나누어서 세 가지의 비행차원(없음, 1가지, 2가지 이상)과 교차분석을 한 것이다. 이 교차분석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의 이론적 요인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가지 잠재요인(latent factors)과 성별과 비행의 2가지의 명시적 변인(manifest variables)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비표준적인 구조방정식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모든 과정은 SAS의 CALIS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CALIS 프로시저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위한 COSAN, FACTOR, LINEQS, LISMOD(리즈렐), MSTRUCT, PATH, RAM, REFMODEL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이 연구에서는 Bentler(1989)가 제안한 방식인 LINEQS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주요독립변인들과 비행과의
관계 : 교차분석
3. 개인적 특성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 교차분석
4. 비행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델

제 4 장 분석결과²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청소년패널 중에서 중1 패널은 2,3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비행변수를 사용한 2차년도 자료에는 약 3%만이 탈락하고 대부분의 패널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학교가 10.46%, 여자학교가 12.34%에 불과한 반면, 남녀공학은 77.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2차 년도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었지만, 정규학교가 아닌 시설에 수용된 경우가 5명이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176명과 1,17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 년도에는 남학생이 1,152명으로 50.50%인데 비해 여학생은 1,129명으로 49.50%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숫자는 46명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분포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930명으로 가장 많은 42.9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34.36%로 많았고, 그 외 전문대졸이 12.92%, 대학원 졸이 6.37%, 중졸 이하가 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6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소규모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21.61%,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14.04%, 가족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0.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할당과정을 통해서 대체로 대표성이 높은 표본이 추출된 것을 보여준다. 특히 표본탈락율이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의 표본추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20) 이 장의 1, 2, 3, 4절은 박철현 교수(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집필하였음.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면접 성공여부	성공	2351	100.0	2281	96.98
	실패	-	-	71	3.02
	합계	2351	100.0	2352	100.0
학교유형	남자학교	246	10.46	238	10.43
	여자학교	290	12.34	283	12.41
	남녀공학	1815	77.20	1755	76.94
	기타	-	-	5	0.21
	합계	2351	100.0	2281	100.0
성별	남자	1176	50.02	1152	50.50
	여자	1175	49.98	1129	49.50
	합계	2351	100.0	2281	100.0
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75	3.46		
	고졸	930	42.90		
	전문대 졸	280	12.92		
	대졸	745	34.36		
	대학원 졸	138	6.37		
	합계	2351	100.0		
부의 종사상 지위	임금/봉급 근로자	1327	63.16		
	고용원을 둔 사업주	295	14.04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54	21.61		
	무급 가족 종사자	5	0.24		
	모름/무응답	20	0.95		
	합계	2101	100.0		

2. 주요 독립변인들과 비행간의 관계 : 교차분석

이 절에서는 설명모델에 도입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비행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비행이나 범죄에 많이 개입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여학생의 경우 비행을 한 가지도 하지 않은 경우가 88.17%로

남학생의 76.79%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행은 한 가지 한 경우와 2 가지 이상 한 경우는 여학생이 각각 7.49%와 4.34%인데 반해, 남학생은 14.29%와 8.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성별과 비행의 관계

성별	비행			합계	χ^2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여학생	1036 (88.17)	88 (7.49)	51 (4.34)	1175 (100.0)	52.8 P<.001
남학생	903 (76.79)	168 (14.29)	105 (8.93)	1176 (100.0)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여러 이론에서 비행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낙인이론에 따르면, 처벌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하락은 추가적인 비행을 가져온다. 또한 코헨의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중산계급의 행동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스트레스는 신분좌절로 나타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하락은 결국 반항적인 비행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보통이거나 높은 청소년이 각각 83.86%와 84.55%가 비행을 한 가지도 하지 않은데 반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79.47%만이 비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비행을 1가지를 하거나 2가지 이상 한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각각 9.85%와 5.60%인데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는 각각 12.89%와 7.6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적게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3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

자아존중감	비행			합계	χ^2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666 (79.47)	108 (12.89)	64 (7.64)	838 (100.0)	8.5 N.S.
보통	774 (83.86)	90 (9.75)	59 (6.39)	923 (100.0)	
높음	498 (84.55)	58 (9.85)	33 (5.60)	589 (100.0)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인습사회와 맺고 있는 끈끈한 유대는 비행을 하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유대는 지역사회, 학교, 친구, 부모 등의 다양한 전통적인 제도나 타인과 맺게 되는 것인데, 특히 부모와의 유대는 청소년을 인습사회에 묶어두는 중요한 결속장치이다.

다음의 표에서 부모애착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은 청소년은 보통이거나 높은 청소년에 비해 특별히 비행이 없는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나,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는 부모애착이 낮은 청소년이 7.10%로 보통이거나 높은 경우의 6.46%와 6.58%에 비해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4 부모애착과 비행의 관계

부모애착	비행			합계	χ^2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413 (81.46)	58 (11.44)	36 (7.10)	507 (100.0)	3.8 N.S.
보통	794 (84.11)	89 (9.43)	61 (6.46)	944 (100.0)	
높음	730 (81.38)	108 (12.04)	59 (6.58)	897 (100.0)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에, 학교에 대한 애착은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다. 다음의 표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경우에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76.83%인 반면에, 학교에 대한 애착이 보통이거나 높은 경우는 비행이 없는 경우가 각각 84.43%와 86.88%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행을 1가지를 하거나 2가지 이상한 경우는 학교애착이 보통인 경우는 각각 11.42%와 4.15%, 그리고 학교애착이 높은 경우는 8.60%와 4.52%인 반면에, 학교애착이 낮은 경우는 1가지를 한 경우가 12.82%, 2가지 이상을 한 경우가 10.3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가정에 대한 애착보다, 학교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5 학교애착과 비행의 관계

학교애착	비행			합계	x ²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683 (76.83)	114 (12.82)	92 (10.35)	889 (100.0)	43.0 P<.001
보통	488 (84.43)	66 (11.42)	24 (4.15)	578 (100.0)	
높음	768 (86.88)	76 (8.60)	40 (4.52)	884 (100.0)	

지역주민들 사이의 통합이나 집합효율성 등을 중요시하는 사회해체의 시각에서, 이웃통합의 정도는 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다음의 표에 따르면, 이웃통합의 정도가 낮은 경우는 보통이거나 높은 경우에 비해서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통합의 정도가 낮은 경우는 비행을 1가지를 하거나 2가지 이상을 한 비율이 보통이나 높은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2가지 이상을 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웃통합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은 8.30%가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반면, 이웃통합의 정도가 보통이거나 높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은 각각 6.23%와 5.35%만이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통합정도가 비행을 하고/하지 않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의 높은 해체 정도는 심각한 비행청소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6 이웃통합과 비행의 관계

이웃통합	비행			합계	x ²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592 (81.88)	71 (9.82)	60 (8.30)	723 (100.0)	6.3 N.S.
보통	852 (82.96)	111 (10.81)	64 (6.23)	1027 (100.0)	
높음	494 (82.61)	72 (12.04)	32 (5.35)	598 (100.0)	

이 연구에서 비행을 유발하는 인지들의 특성으로 크게 적대적 시각, 미래평하 시각, 냉소적 시각의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의 표는 적대적 시각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 본다. 이 표에 따르면,

적대적 시각이 약하거나 보통인 청소년은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3.02%와 84.09%인 반면에, 적대적 시각이 강한 청소년은 78.55%만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행을 1가지 하거나 2가지 이상 한 청소년은 적대적 시각이 약한 청소년이 각각 11.28%와 5.71%, 그리고 적대적 시각이 보통인 청소년이 9.51%와 6.40%인데 반해서, 적대적 시각이 강한 청소년은 비행을 1가지 한 경우가 13.09%, 그리고 비행을 2가지 이상 한 경우가 8.26%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도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적대적 시각을 강하게 가질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7 적대적시각과 비행의 관계

적대적 시각	비행			합계	x ²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611 (83.02)	83 (11.28)	42 (5.71)	736 (100.0)	9.3 N.S.
보통	893 (84.09)	101 (9.51)	68 (6.40)	1062 (100.0)	
높음	432 (78.55)	72 (13.09)	46 (8.36)	550 (100.0)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2번째 요소인 미래편하 시각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래편하 시각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3.36%와 83.54%인데 반해, 미래편하 시각이 강한 경우는 79.61%로 더 적은 청소년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미래편하 시각이 약한 경우와 보통인 경우는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각각 4.76%와 6.71%인데 비해서, 미래편하 시각이 강한 경우는 8.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중요시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비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8 미래편하시각과 비행의 관계

미래편하 시각	비행			합계	x ²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631 (83.36)	90 (11.89)	36 (4.76)	757 (100.0)	11.5 P<.05
보통	822 (83.54)	96 (9.76)	66 (6.71)	984 (100.0)	
높음	484 (79.61)	70 (11.51)	54 (8.88)	608 (100.0)	

마지막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3번째 요소인 냉소적 시각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냉소적 시각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2.47%와 84.70%인 반면에, 냉소적 시각이 강한 경우에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79.37%로 더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행을 2가지 이상한 경우는 냉소적 시각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각각 6.18%와 5.18%인 반면에 냉소적 시각이 강한 경우는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9.4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인지들을 가진 청소년이 더 많은 비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9 냉소적시각과 비행의 관계

냉소적 시각	비행			합계	x ²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낮음	814 (82.47)	112 (11.35)	61 (6.18)	987 (100.0)	11.4 P<.05
보통	670 (84.70)	80 (10.11)	41 (5.18)	791 (100.0)	
높음	454 (79.37)	64 (11.19)	54 (9.44)	572 (100.0)	

다음의 표는 앞서 살펴 본 적대적 시각, 미래땀하 시각, 냉소적 시각을 모두 합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요인을 만들어 이것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이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되거나 보통인 사람들은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2.77%와 85.12%인데 비해, 이것이 강한 사람은 79.31%만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거나 보통인 사람은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각각 5.57%와 5.49%인데 비해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한 사람들은 8.96%로 훨씬 더 높았다.

표 IV-10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비행의 관계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비행			합계	x ² 검증
	없음	1가지	2가지 이상		
약함	639 (82.77)	90 (11.66)	43 (5.57)	772 (100.0)	13.4 P<.01
보통	698 (85.12)	77 (9.39)	45 (5.49)	820 (100.0)	
강함	602 (79.31)	89 (11.73)	68 (8.96)	759 (100.0)	

3. 개인적 특성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교차분석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범죄적 지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51.36%였으나,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각각 22.67%와 30.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는 18.14%에 불과한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가 각각 42.24%와 32.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1 자아존중감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자아존중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합계	χ^2 검증
	약함	보통	강함		
낮음	190 (22.67)	294 (35.08)	354 (42.24)	838 (100.0)	157.3 P<.001
보통	279 (30.23)	346 (37.49)	298 (32.29)	923 (100.0)	
높음	303 (51.36)	180 (30.51)	107 (18.14)	590 (100.0)	

부모에 대한 애착에 따른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사람이 52.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부모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는 각각 18.82%와 21.61%로 낮았다. 반면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는 부모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각각 42.24%와 32.29%였으나, 부모애착이 높은 경우는 18.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2 부모애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부모애착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합계	χ^2 검증
	약함	보통	강함		
낮음	96 (18.82)	141 (27.65)	273 (53.53)	510 (100.0)	341.4 P<.001
보통	204 (21.61)	413 (43.75)	327 (34.64)	944 (100.0)	
높음	472 (52.62)	266 (29.65)	159 (17.73)	897 (100.0)	

다음으로 학교애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애착이 높은 경우는 범죄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49.10%로 매우 높았으나, 학교애착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각각 19.24%와 28.89%로 낮았다. 반대로 학교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에 강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된 비율은 각각 47.47%와 32.01%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애착이 높은 경우는 단지 17.19%만이 높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에 대한 애착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3 학교애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학교애착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합계	χ^2 검증
	약함	보통	강함		
낮음	171 (19.24)	296 (33.30)	422 (47.47)	889 (100.0)	253.8 P<.001
보통	167 (28.89)	226 (39.10)	185 (32.01)	578 (100.0)	
높음	434 (49.10)	298 (33.71)	152 (17.19)	884 (100.0)	

마지막으로 이웃통합의 정도에 따른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정도를 살펴보면, 이웃통합이 강한 지역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59.0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웃통합의 정도가 보통이거나 약한 지역에서는 각각 27.46%와 18.87%만이 약한 범죄유발적 지식구

조를 갖고 있었다. 반면 이웃통합이 강한 지역에서 강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경우는 15.38%에 불과하였으나, 이웃통합이 약하거나 보통인 지역에서 강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경우는 49.31%와 30.09%로 훨씬 많았다. 이 결과는 이웃통합의 정도 역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4 이웃통합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관계

이웃통합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합계	χ^2 검증
	약함	보통	강함		
낮음	137 (18.87)	231 (31.82)	358 (49.31)	726 (100.0)	330.4 P<.001
보통	282 (27.46)	436 (42.45)	309 (30.09)	1027 (100.0)	
높음	353 (59.03)	153 (25.59)	92 (15.38)	598 (100.0)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 선정한 이론적 변수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행과 일정 부분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별이나 학교애착, 이웃통합,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이 비행과 강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나머지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애착, 적대적 시각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들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4. 비행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모델

5가지의 잠재요인(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과 두 가지의 명시적 변인(성별, 비행)을 가진 비행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들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다음, 두 번째로 경로모델을 통하여 이론적 모델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갖는 강점은 요인들을 설명하는 지시변수들을 최대한 알맞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최대한 배제하여 순수하게 이론적인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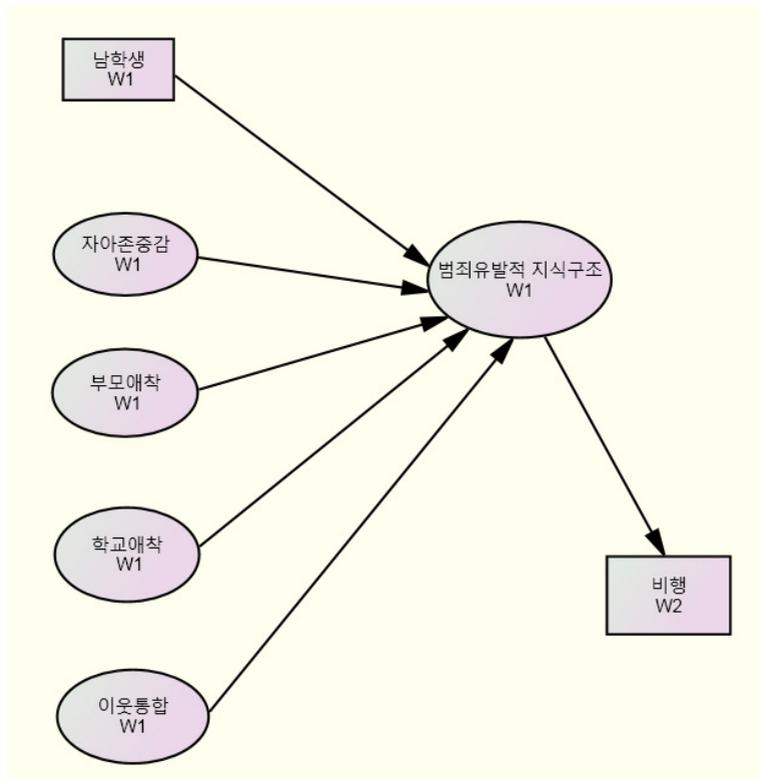
이러한 1단계 분석에서 도입된 명시적 변수들을 총 20개로서 다음의 표에 이들의 구체적인 기술통계치들이 요약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시변수의 잔차와 이들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떨어뜨리는 두 변수들이 제외되었다(V10, V19). 특히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구성하는 세 변수들(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은 3-5가지 변수들을 합산하여 만든 변수들로서, 다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라는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지시변수들로 투입되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은 한 변수로 구성된 다른 변수에 비해서 최대값이 20이나 12의 값을 갖게 되었다.

표 IV-15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수명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V1	비행(가짓수) - 2차년도	2352	0.298	0.816	0	8
V2	적대적 시각	2348	10.636	2.678	5	20
V3	미래편하 시각	2349	9.787	3.15	5	20
V4	냉소적 시각	2350	6.406	1.798	3	12
V5	성별(남학생)	2351	0.5	0.5	0	1
V6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350	2.812	0.855	1	4
V7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2350	2.776	0.819	1	4
V8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2350	2.978	0.903	1	4
V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2350	2.861	0.834	1	4
V10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2350	3.071	0.803	1	4
V11	부모님께서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2350	3.015	0.805	1	4
V12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2348	3.051	0.802	1	4
V13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2350	2.881	0.822	1	4
V14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2351	2.341	0.732	1	4
V15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2351	2.666	0.694	1	4
V16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2351	2.942	0.724	1	4
V17	나는 거리에서 우리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2348	2.768	0.949	1	4
V18	나는 우리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2348	2.76	0.873	1	4
V19	나는 우리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2347	2.734	0.845	1	4
V20	나는 우리동네에서 계속살고 싶다	2348	2.829	0.916	1	4

이렇게 산출된 측정모델의 χ^2 값은 341.4이며 자유도는 117이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χ^2 값과 자유도의 비가 2 이하가 되어야 적절한 모델로 평가하는데, 이 연구의 측정모델은 이 값이 2.9로 이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표본이 큰 경우에는 모델이 적절히 구성된 경우에도 이 비가 2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다른 지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Hatcher, 1994:290). 따라서 이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 중에, 벤틀리의 CFI가 .978, NFI가 .968, NI가 .972, 그리고 GFI가 .984로 나타났다. 이런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자료가 모델에 잘 적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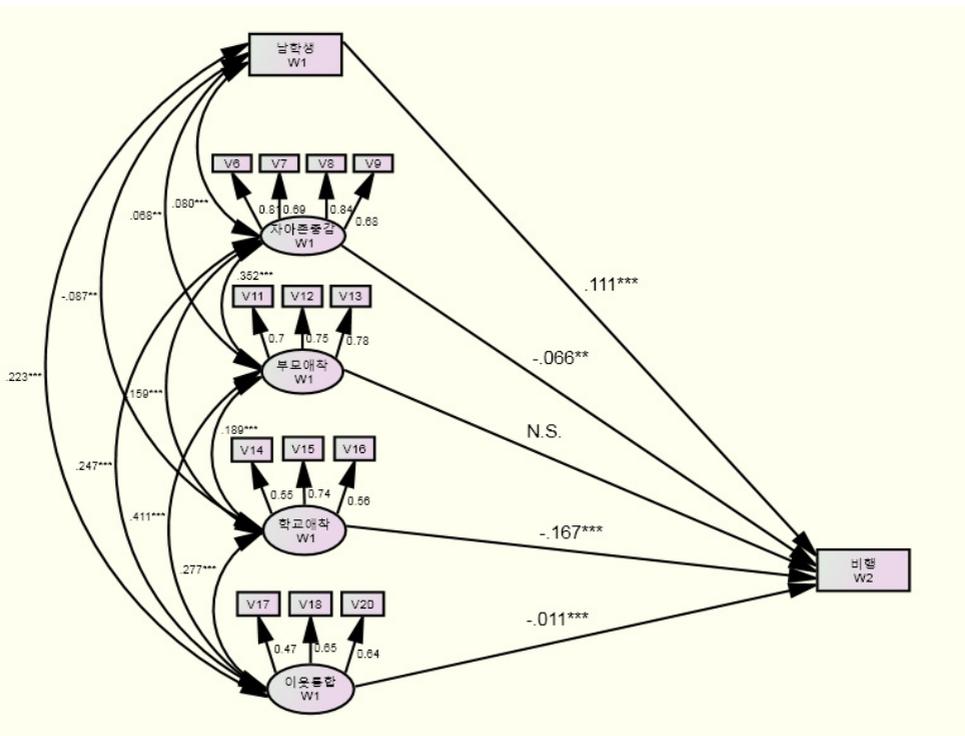
이렇게 측정모델을 구성한 다음 단계는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기존의 이론들에서 제시한 비행에 설명하는 요인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인지들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비행은 2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IV-1】 이론적 모델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론들은 대부분 이러한 비행과 관련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모델은 직접효과모델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이웃통합의 정도가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로와 관계를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및 요인들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일수록 비행을 많이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행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비행과 유의미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반면에, 학교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적게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웃통합의 정도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적게 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의 효과는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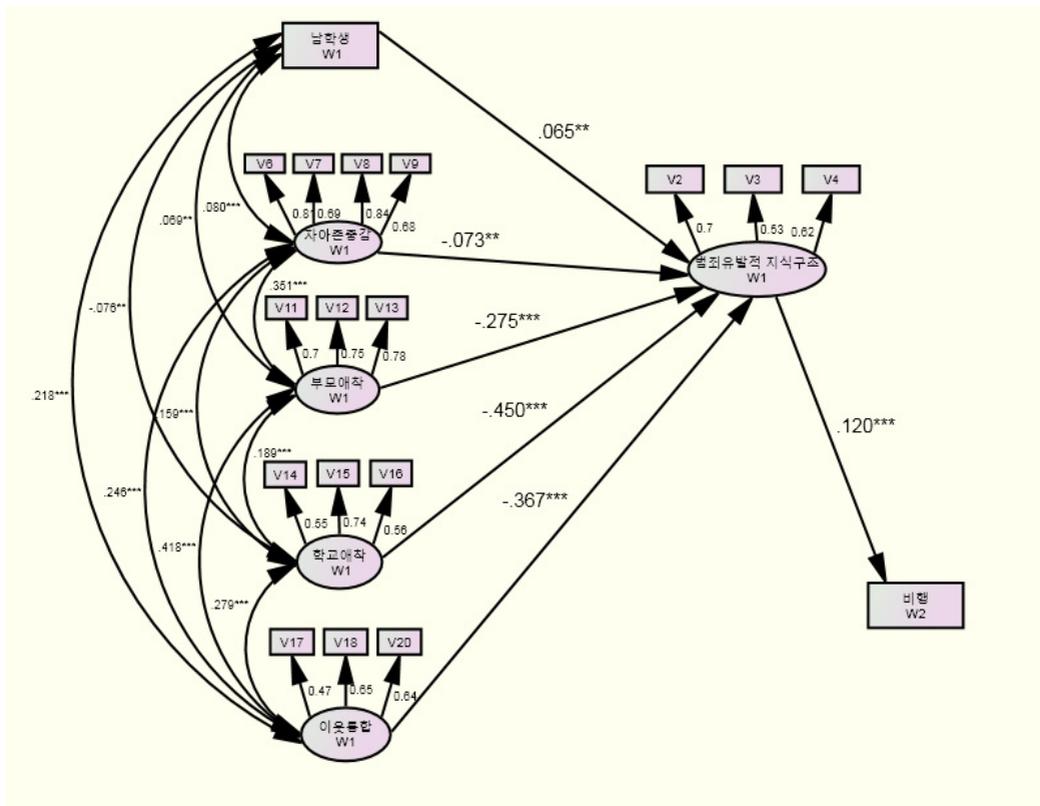


【그림 IV-2】 직접효과 모델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요인들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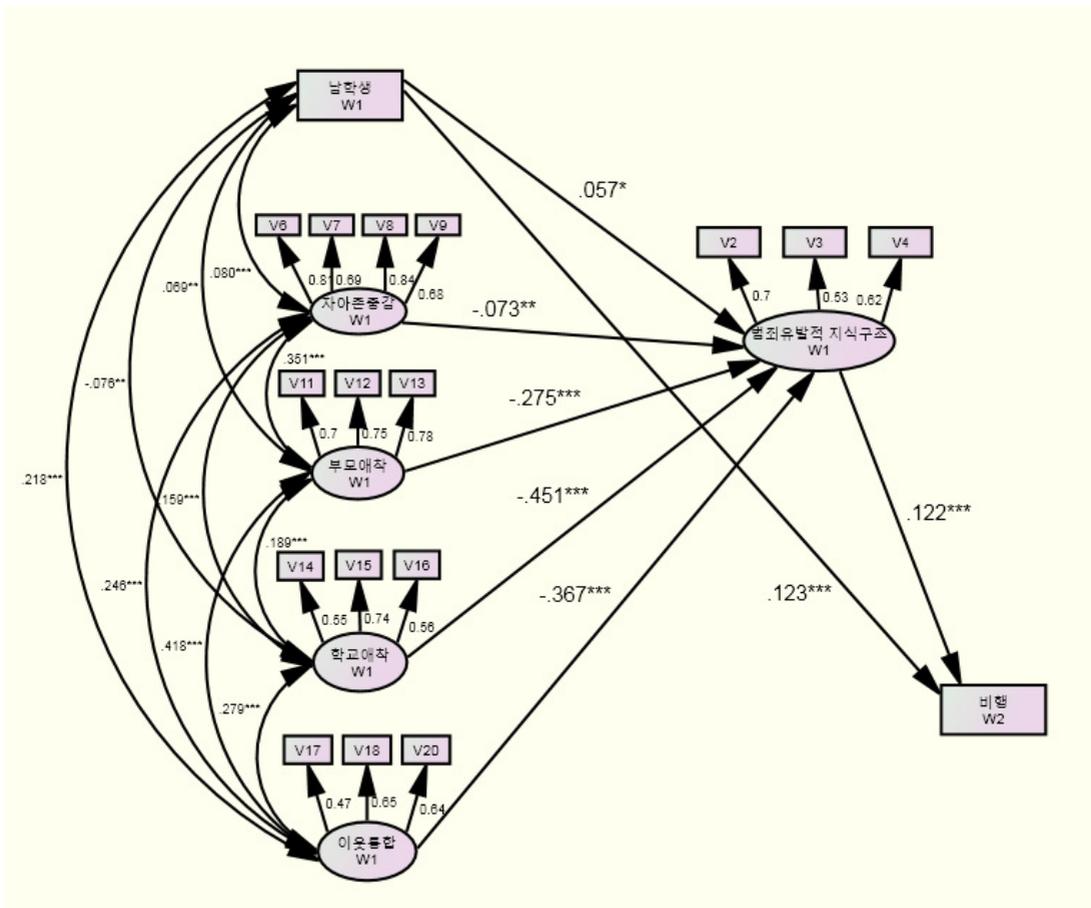
이러한 이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매개효과모델). 이 모델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으로 구성되며,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이웃통합의 정도에 의해 설명되며, 또한 이 요인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며(.065**), 자아존중감이 약할수록(-.073**),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275***),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450***), 이웃통합의 정도가 약할수록(-.367***)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 이웃통합, 부모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20***).



【그림 IV-3】이론적 모델(매개효과모델)

이 이론적 모델의 χ^2 값은 403.5이며 자유도는 122로 나타났다. 따라서 χ^2/df 비는 3.3으로 적정 수준인 2.0을 상당히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FI가 .973, NFI가 .962, NI가 .966, 그리고 GFI가 .981로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aldo test와 Lagrange multiplier test를 통해서 보다 적합도가 높은 모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앞의 이론적 모델에 비해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가한 것이다.



【그림 IV-4】 수정모델

이 수정모델의 χ^2 값은 367.6이며 자유도는 121이다. 따라서 χ^2/df 비는 3.04로서 앞의 모델에 비해 이 수치가 줄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카이스퀘어 값은 이 연구에서처럼 표본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델이 적절히 적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높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의 지표들을 보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수치들 중에 CFI가 .976, NFI가 .965, NI가 .970, 그리고 GFI가 .983로 모델의 적합도는 초기에 세웠던 이론모델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정모델을 최종모델로 선택한다.

표 IV-16 각 모델들의 적합도

지표	이론모델	수정모델
χ^2	403.5	367.6
자유도	122	121
χ^2/df	3.31	3.04
CFI	.973	.976
NFI	.962	.965
NI	.966	.970
GFI	.981	.983

이 수정모델의 결과는 처음 세웠던 이론모델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성별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초기의 이론모델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며(.057**), 자아존중감이 약할수록(-.073**),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275***),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450***), 이웃통합의 정도가 약할수록(-.367**)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 이웃통합, 부모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22***).

이 결과는 기존의 범죄학이론에서 중요시 되는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유발적 인지들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로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비행유발적 인지들은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비행유발적 인지들이 강하게 형성된 청소년들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5 장

결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21)

결정론(determinism)과 자원론(voluntarism)은 현대 사회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이다 (Cohen, 1989: 44). 인간행위가 외부적·내부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특유의 사유능력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인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어느 한편도 만족스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²²⁾. 열악한 성장환경에 의해 악행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더욱 건실히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정론이나 자원론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결국 인간행위를 설명하고 부적응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정론과 자원론 모두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모순의 원인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비행연구들과 예방대책들이 결정론에 경도되고 청소년의 자원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비행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되어야 할 비행예방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이 장의 1절은 이순래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집필하였고, 2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2) 부드러운 결정론(soft determinism)과 제한된 합리성론(restricted rationality)이 어느 정도까지 결정된다.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등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는 핵심이슈를 회피할 뿐이며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한다. 결정의 범위와 자의의 범위가 우선 모호하고 또한 범위 내에서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되는가 아니면 선택되는가를 또다시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스티븐 랩, 2010: 294).

1. 연구요약

우선 주관적 사고과정에 대한 문헌검토로 사람들이 주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Mead, 1962; Blumer, 1969; Schutz, 1967; Schur, 1984).

첫째, 사람은 사고능력이 있고 주관적 사고과정을 통해 행위를 선택한다.

둘째, 사람은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반해 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

셋째, 사고능력과 주위대상에 대한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다.

넷째, 주위대상의 의미는 생활과정에서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

다섯째, 사고하고 성찰하는 자아의 능력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쌓임으로써 자아능력이 발달한다.

여섯째, 주위대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는 인지들을 통해서이다. 인지들은 전체 사회의 문화적 일반유형들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은 이를 통해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를 선택한다.

이어서 범죄유발적 사고에 관한 문헌검토를 통해 청소년이 비행을 선택하는 핵심요인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의 경험들로 인해 적대적 시각(hostile view of relationships), 미래편하 시각(discounting view of future), 냉소적 시각(cynical view of conventional norms) 등의 사회적 인식들이 형성되고 이런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로 인해 해당 청소년은 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함으로써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Simons & Burt, 2011).

다음으로 이상의 문헌검토를 통해 구체적 연구문제들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문제 1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분석결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되거나 보통인 사람들은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2.77%와 85.12%인데 비해, 이것이 강한 사람은 79.31%만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거나 보통인 사람은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각각 5.57%와 5.49%인데 비해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한 사람들은 8.96%로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적대적 시각의 경우에 이런 사회적 인지들이 약하거나 보통인 청소년은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3.02%와 84.09%인 반면에, 적대적 시각이 강한 청소년은 78.55%만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행을 1가지 하거나 2가지 이상 한 청소년은 적대적 시각이 약한 청소년이 각각 11.28%와 5.71%, 그리고 적대적 시각이 보통인 청소년이 9.51%와 6.40%인데 반해서, 적대적 시각이 강한 청소년은 비행을 1가지 한 경우가 13.09%, 그리고 비행을 2가지 이상 한 경우가 8.26%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편하 시각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 인지들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3.36%와 83.54%인데 반해, 미래편하 시각이 강한 경우는 79.61%로 더 적은 청소년이 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미래편하 시각이 약한 경우와 보통인 경우는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각각 4.76%와 6.71%인데 비해서, 미래편하 시각이 강한 경우는 8.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냉소적 시각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 인지들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2.47%와 84.70%인 반면에, 냉소적 시각이 강한 경우에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79.37%로 더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행을 2가지 이상한 경우는 냉소적 시각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각각 6.18%와 5.18%인 반면에 냉소적 시각이 강한 경우는 2가지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가 9.4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는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생활경험들이 부정적일수록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갖는 경향이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우에, 부모애착이 높았을 때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사람이 52.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부모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는 각각 18.82%와 21.61%로 낮았다. 반면에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경우는 부모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는 각각 42.24%와 32.29%였으나, 부모애착이 높은 경우는 18.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애착의 경우에, 학교애착이 높았을 때에 범죄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49.10%로 매우 높았으나, 학교애착이 약하거나 보통인 경우는 범죄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각각 19.24%와 28.89%로 낮았다. 반대로 학교애착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에 강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된 비율은 각각 47.47%와 32.01%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애착이 높은 경우는 단지 17.19%만이

높은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으로 나타났다

이웃통합의 경우에, 이웃통합이 강한 지역에서 범조유발적 지식구조가 약하게 형성된 경우가 59.0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웃통합의 정도가 보통이거나 약한 지역에서는 각각 27.46%와 18.87%만이 약한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를 갖고 있었다. 반면 이웃통합이 강한 지역에서 강한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경우는 15.38%에 불과하였으나, 이웃통합이 약하거나 보통인 지역에서 강한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를 가진 경우는 49.31%와 30.09%로 훨씬 많았다.

연구문제 3은 상황적 조건, 범조유발적 지식구조,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적 조건들은 직접효과보다는 범조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비행을 선택하는 경향이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일수록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키며(.057**), 자아존중감이 약할수록(-.073**),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275***),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450***), 이웃통합의 정도가 약할수록(-.367***) 범조유발적 지식구조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 이웃통합, 부모에 대한 애착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범조유발적 지식구조가 강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2***).

2. 정책제언

1) 일반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성찰적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능력은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야 발달한다(Mead, 1962; Blumer, 1969). 이런 점에서 일반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인성교육시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방법적인 면에서도 주입식 도덕수업 방법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남을 많이 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예방하는 한 방편으로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학계와 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분들께 의뢰하여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성찰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시설, 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강사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관련 정부, 지자체, 청소년 기관, 학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일반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일반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는 비율을 감소키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 \ 일정	2013년	2014년	2015년
자아성찰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자아성찰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보급 - 홍보강사제도의 운영 - 활동프로그램의 지원 - 온라인 배포		→	→

2) 일반 청소년 대상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hutz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행동방식, 문제해결책, 사회세계의 이해방법 등을 배운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일반유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한다(Schutz, 1967).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일상생

활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래를 폄하하고 운명주의적이며, 사회규범을 경시하는 문화를 배우면 자신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Simons & Burt, 2011).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 등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앞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서처럼 관련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학계와 현장의 비행예방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분들과 함께 청소년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관심을 갖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앞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학교애착, 이웃통합 등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시 앞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시설, 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앞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에서처럼 홍보강사제도의 운영, 정부 및 지자체 활동프로그램 지원,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배포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반 청소년 대상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약화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 일정	2013년	2014년	2015년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약화 비행예방프로그램의 개발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약화 비행예방프로그램의 보급 - 홍보강사제도의 운영 - 활동프로그램의 지원 - 온라인 배포		→	→

3)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 교육 실시

청소년들의 일상적 비행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일이다. 전문 강사이외에 단체·시설 담당자와 교사 분들도 이들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어야만 프로그램 시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시설, 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급할 때, 단체·시설 담당자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내용 \ 일정	2013년	2014년	2015년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 교육 실시		→	→

4)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를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이 연구결과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지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인지치료프로그램의 목표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와 행동을 인지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인지적 왜곡에 대해 알고 이를 없애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Houston, Wrench, and Hosking, 1995).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인지가 상호작용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을 참조하면 현행의 인지치료프로그램은 개인에 집착한 것으로 옳바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지치료프로그램 과정에 주변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Giordano와 동료들은(2002) 잘못 구성된 인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들은 일정한 변화유인제(hooks for change)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인지지침(clear cognitive blueprint)을 제시하고, 현재의 자기모습과 다른 대치자아(replacement self)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주고, 대상자의 관심을 미래지향적으로 유도하고, 긍정적 자극과 연계하고, 친사회적 구성원들과의 접근통로를 활성화하는 등의 변화유인제가 있었을 때에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지들은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들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현재의 자기모습과 다른 대치자아, 긍정적 자극, 미래지향적 관심유도, 친사회적 구성원들과의 접근통로 활성화 등 변화유인제를 포함한 내용이 프로그램에 담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관련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과 단체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회복적 사법제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비행 청소년들의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 \ 일정	2013년	2014년	2015년
비행 청소년 사회적 인지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		
비행 청소년 사회적 인지들 개선 프로그램의 보급		→	→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은 라인조사 통계.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10). 2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 국무총리실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도자료.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11). 형사정책 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세정 (1998).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학교-경찰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216-258.
- 박철현 (2010). 사회문제론. 박영사.
- 법무부 (2007). 소년법(법률 제11005호)
- 법무연수원 (2012). 범죄백서.
- 스티븐 램 (2011). 범죄예방론. 이순래, 박철현, 김상원(공역). 도서출판 그린.
- 이순래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2005).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발표원고.
- 이순래 (2008).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성격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19(4), 1-28
- 조지 리처 (2001). 현대사회학이론. 최재현(역). 형설출판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 최상근 (2011). Wee프로젝트 추진과 전망. 교육개발, 38(2), 28-3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 Akers, Ronald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MA: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Bandura, Albert. (2006).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 164–180
- Becker, H. (1963). *Outsider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Bentler, P.M. (1989).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os Angeles: BMDP Statistical Software
- Blumer, Herbert.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icourel, Aaron V. (1968). *The Social Organization of Juvenile Justice*. New York: Wiley
- Cohen, Bernard P. (1989). *Developing Sociological Knowledge*. Chicago, IL: Nelson–Hall Inc.
- Emerson, Robert M. (1969). *Judging Delinquents*. Chicago: Aldine
- Johnson, Doyle Paul. (1981). *Sociological Theory: Classical Founders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Giordano, Peggy C., Stephen A. Cernkovich, and Jennifer L. Rudolph. (2002).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 990–1064
- Gottfredson, Michael R., and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iffin, Emory A. (2006).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Boston: McGraw–Hill
- Hatcher, Larry. (1994). *A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the SAS System for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S Publishing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uston J. M. Wrench, and N. Hosking. 1995. Group processes in the treatment

- of child sex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6, 359–368
- Kroneberg, Clemens, Isolde Heintze, and Guido Mehlkop. (2010). The interplay of moral norms and instrumental incentives in crime causation. *Criminology*, 48(1), 259–294.
- Lemert, E.M.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Mead, George Hebert, (1962). *Mind, Self, &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isenhelder, Thomas. (2006). From character to habitus in sociology. *Social Science Journal*, 43, 55–66
- Reynolds, Larry T. & Nancy J. Herman–Kinney. (2003). *Handbook of Symbolic Interactionism*. Altamira Press
- Scheff, Thoma J. (1966). *Being Mentally Ill*. Chicago: Aldine
- Schur, Edwin M. (1984). *Labelling Women Deviant*. New York: Random House
- Schutz, Alfred. (1967). *The Phenomenology of Social World*, translated by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imons, Ronald & C. H. Burt. (2011). Learning to be bad: Adverse social conditions, social schemas, and crime. *Criminology*, 49(2), 553–598
- Sudnow, David. (1965). Normal crimes. *Social Problems*, 12(Winter), 255–276
- Taylor, Ian, Paul Walton, and Jock Young, (1973). *The New Criminology*. Harper Torchbooks.
- Thomas, William I. (1923). *The Unadjusted Girl*. Boston: Little, Brown
- Vaughan, Karen & Josie Roberts. (2007). Developing a 'productive' account of young people's transition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0(2), 91–105
- Wikstrom, Per–Olof H. & R. Svensson. (2010). When does self–control matter? The interaction between morality and self–control in crime caus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7, 395–410
- Wikstrom, Per–Olof H. & K. Treiber. (2007). The role of self–control in crime

causation: Beyond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 237-264

Abstract

A Study on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and Juvenile Delinquency

In this study, we have attempted to search for delinquency prevention policy necessary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situational conditions and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as well as the effect of situational conditions and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on juvenile delinquency.

For this, the crosstabulation (χ^2 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targeting the first and second year data in seventh grade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The main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endency of juveniles having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committing a lot of delinquency was shown. Second, the tendency of juveniles having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as the life experience of juveniles such as school attachment, parent attachment and neighbor integration, etc become negative was shown. Third, The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develops to become stronger with male students (.057**), as self esteem gets weaker (-.073**), as parents attachment gets weaker (-.275***), as school attachment gets weaker (-.450***), and as neighbor integration gets weaker (-.367***). And the juveniles were shown as being more delinquent as the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formed gets stronger (.122***).

Based on these analyzed results, the suggestion of four policies have been presented as follows. First is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introspective ability of juvenile ego targeting ordinary juveniles. Second is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a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that can weaken the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targeting ordinary juveniles, Third is performing education program of organization or facility supervisors and teachers. Fourth is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social recognition framework improvement program targeting juvenile delinquents.

Keywords :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Juvenile Delinquency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보고 12-R14-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인 쇄 2012년 12월 24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599-0 94330

978-89-7816-595-2 (세트)